

농어촌공사 나주,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농업인 소통간담회

✎ 김육봉(=호남) 기자 | ⓒ 승인 2025.03.12 14:52



[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]

[폴리뉴스 김육봉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직접 지역 청년농을 찾아가 현장감 넘치는 목소리 듣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청년농 집중 지원사업인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설명 및 올해 중점 제도개선 사항 교육 등 청년농이 조기 정착하는 데 유용한 알찬 정보로 채워졌다. 또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의 실제 수요자인 청년농이 실제 체감하는 불편 사항 경청과 제도개선 방안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.

특히, 한 청년농은 "영농 초기에 정착 지원 정보가 절실했지만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커뮤니티 비활성화 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"며 "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공사에 큰 만족감과 감사함"을 표했다.

나주시사는 '2024년 전남지역 최우수 실적 지사로 선정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'맞춤형 농지지원사업'에 전년 대비 110% 수준인 10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'선임대후매도사업', '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' 등 청년농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한층 더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강수진 지사장은 "우리 공사가 앞장 서 청년농과 상호 협력·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농업에서 성공 신화를 개척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

김육봉(=호남) 기자 news1@polinews.co.kr

저작권자 ©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